동학역사문화연구소 총서[1]

정읍지역 근·현대 민족운동사



주관 |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역사문화연구소
후원 | 전라북도

일제강점기 보천교(普天敎)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 보천교(普天敎)의 민족운동

김 재 영[40]

개요

기성종교와 소위 '유사종교(類似宗敎)'를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럼에도 일제는 법령상 불교, 기독교, 신도 이외의 종교를 모두 유사종교라는 굴레를 씌워 탄압했다. 이른바 유사종교는 합방 이전에 만들어진 종교도 있으나, 대부분 합방 이후에 창교된 것이 많다는 점에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선의 정치 · 경제적 식민지 상황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간에서는 '신흥종교' 또는 일제강점기 '유사종교'로 불리었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이다. 보천교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그간 보천교에 대한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일반인들이 시각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특정 종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모두 종교적인 인연이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이 글은 보천교가 과연 우리 '민족운동'에 동참 내지 일조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1925년 친일단체인 '시국대동단' 결성 이전인 1920년대 전반 독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의 선구라 볼 수 있는 자급자족운동,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민족대학설립 등으로 대표되는 민족실력양성운동, 일본 유학생 파견을 비롯한 근대적인 학문을 수용하기 위한 보천교의 교육활동, 보천교농악단을 비롯한 잡지 '보광' 발간 등 대중문화운동,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인 형평운동과의 연계성, 3 · 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민족의 구심점을 잃고 있던 시기에 나온 '천자등극설'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면관계 상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거나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에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구체적인 독립운동 사례를 통해서 보천교

40) 문학박사.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려 한다. 이어서 천자등극설의 배경과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보천교에서는 각종 민족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보천교는 1909년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에 의해 창시된 신종교다. 증산교계 종단 가운데 가장 교세가 컸으며, 영향력 또한 가장 컸던 종교로 신종교를 연구하는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사종교' 로 분류되어 탄압을 받기도 했으나,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했다. 그럼에도 보천교는 그간 '사이비 종교' 라는 인식으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천교에 대한 최초의 논문은 1966년 『전북대학교 논문집』에 실린 「보천교」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비로소 학계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은 보천교를 증산 사후 교단의 분파 과정의 하나로만 다뤘을 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1988년에는 교주의 은피 생활, 일제의 간교한 회유 정책, 시국대동단(時國大同團)의 조직 권고와 박해, 영위 봉안식의 거부, 계유년(1933) 박해 등으로 나누어 보천교의 탄압 사례를 정리한 글이 발표되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보천교는 민족종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음 해에는 「신흥종교 취락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보천교 신자 가구주를 중심으로 "보천교가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종교인가" 라는 설문에 48%가 그렇다고 응답한 적이 있었다는 설문 결과를 함께 발표함으로써 보천교의 민족주의적인 성격에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1992년에는 보천교는 증산교에서 파생된 신흥종교로 규정하고, 교조의 출생과 구도, 교리, 포교활동, 교단 운영, 친일 행위에 이르기까지 보천교의 전반에 대한 글이 발표됨으로써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폭 넓은 자료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일제의 회유 공작으로 보천교가 세상에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회유 정책은 차경석의 종교 집단을 그들의 식민통치에 적절히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풀이했다. 또 차경석은 교도들이 헌납한 재산의 대부분을 무마 공작비로 사용했고, 우리민족 독립운동에는 한 푼도 준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93년에 창시자인 차월곡과 민족해방 운동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보천교에서 추진한 사업을 언론 · 출판사업, 자급자족운동, 대중문화운동, 교육사업, 기산조합(己産組合) 활동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글이 발표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1997년에는 보천교 탄압 사례가 대종교, 천도교와 함께 발표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연구는 보천교 연

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천교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또 보천교주 차경석이 경남 황석산에서 국호를 '시'(時)로, 그리고 교명을 '보화교'(普化敎)로 선포하면서 천자 자리에 등극하였던 황석산 천제사건은 그가 교권을 장악코자 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발표되었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종식과 새로운 민족국가의 탄생을 선포하는 민족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일종의 노동조합 형태인 기산조합의 경제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일제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선전에 의해서만 보천교가 사이비 종교로 매도당한 것이 아니라, 민족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전근대적인 틀을 여전히 묵수하고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는 보천교는 사교이고 미신 놀음집단에 불과하다." 고 단정 짓는 글이 2002년에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보천교가 일제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 단편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보천교도 대부분이 민중인 농민층이었다는 사실을 전거로 보천교의 민족 · 민족주의적 성향과 활동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보천교의 역사적 복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6개월에 불과한 보천교의 '시국대동단' 의 활동(1925.1~1925.7)만을 가지고 보천교의 성격을 규명했을 뿐, 시국대동단 결성 이전의 보천교의 각종 문화운동, 교육활동, 독립운동 자금지원 사실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림으로써 보천교를 보는 시각에 균형 감각을 잃고 있다. 그렇다고 필자가 보천교의 일부 친일행위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인식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천교의 성격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간 보천교가 사이비 종교라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항일투쟁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간 학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 · 심화시켜 볼 것이다. 이로써 논란이 일고 있는 보천교의 실체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천자등극설' 이다. 일제강점기 거대한 민중을 조직해 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차월곡이라면, 차월곡의 천자등극설은 민중을 일거에 조직해 낼 수 있었던 현실적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당시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의 대안이요, 계급적 · 민족적 모순조차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피안의 해탈처로 비춰졌던 것이다.

보천교운동의 최종 목표는 새 세상 만들기이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천자등극설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필연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당시 민중 조직의 근거가 되었던 보천교 천자등극설의 배경과 세간에 알려져 있는 보천교 인식을 소개하면서 등극설이 갖는 당시 사회적 · 시대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증산교와 보천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려 한다.

변혁을 꿈꾼 사람들, 강증산과 차월곡

강증산의 천지공사

증산교의 교조는 강일순이다. 호가 증산이었으므로 강증산(또는 '강삿갓')으로도 불렀다. 본관이 진주, 본명은 흥주, 휘자는 일순이며 1871년 정읍 덕천면 객망리(현 신월리 신송마을) 시루봉 아랫마을에서 태어났다.

증산은 24세 되던 해, 동학에도 뜻을 두어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이 북상하는데 공주까지 행군한 일도 있었다. 『대순전경』(大巡典經)에는 그 해 겨울철 동학군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고 망동치 말라고 효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증산은 30세까지 전국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행한 결과 유 · 불 · 선을 토대로 한 '흠치교' 라는 종교를 창시했다. 증산교는 그의 사후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는 1901년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49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도를 닦아 드디어 우주의 조화 본능을 뜻대로 하게 되어 상제의 권능을 얻었다. 이후 '옥황상제' 로 칭하고 기행이적이 많았다.

증산사상의 핵심은 '천지공사' (天地公事)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천지공사란 옥황상제의 권능으로 천 · 지 · 인 3계를 모순된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즉 천지운행 도수를 자기 손으로 뜯어고친다는 것이다. 증산의 후천개벽 사상은 증산사상의 체계화 과정에 『정역(正易)』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증산이 일부(一夫) 김항(金恒) 선생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고, 증산교단에서 경전이 나오기 이전 『정역』의 논리를 교리로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비록 광복 이후에 출간되긴 했지만 보천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대도지남(大道指南)』과 『시감(時鑑)』을 통해 정역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정역』의 영향은 『현무경(玄武經)』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현무경』의 내용이 십이물형부(十二物形符)를 역학의 원리에 따라 그린 것으로 보인다.

증산은 천지공사의 실현을 위해 '동곡약방' (東谷藥房)을 세웠으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숱한 예언과 치병의 기적을 보여 주었다. 『대순전경』 치병조에는 앉은뱅이를 걷게 함은 물론이고 치질, 횟배, 폐병, 안질, 설사, 소한두통, 장병(長病), 급증 등 무려 60여 가지의 치병 사례가 나와 있다.

천지공사는 구체적으로 운도공사(運度公事), 신명공사(神明公事), 인도공사(人道公事)를 말하는 것으로 운도공사는 자연의 운행법칙을 바로잡는 것이며, 신명공사는 종교를 비롯한 정신문화를 바로잡는 것이다. 인도공사는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운도공사는 다시 액운공사, 세운공사, 교운공사, 지운공사로 나누어진다. 액운공사란 선, 후천이 바뀌어지는 시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재난과 액운을 모면하기 위한 공사다. 세운공사는 세계의 운도를 조정하여 상극투쟁에 빠진 인류를 상생상화하는 도로 대동단결케 하는 것이며, 교운공사는 자신의 교리를 펴고 발전시키는 공사를 의미한다. 지운공사는 각 민족 사이에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고 세계가 어지러운 것은 각 지방신과 지운이 통일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하는 공사를 말한다. 그러나 증산사상의 핵심은 '해원상생' (解寃相生)이라 할 수 있다. 5만년 선천시대의 원한을 각자 풀고 서로 함께 살며 생명을 건지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로 인해 원통하고 억울한 지역에 놓이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내세운 '생명사상' 이었다.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증산사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철학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불교, 도교, 유교, 주역 등에 관심이 많은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증산이 제시한 사상은 전 지구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정신사적 ·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차월곡의 천자등극설

증산은 천지공사를 행하던 1907년 어느 날 우연히 금구면 거야 주막에서 차경석(車京石)을 만나 입암면 대흥리로 오게 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증산은 차경석의 이종매인 고씨 부인과 결혼하고 차경석에게 도를 전한 다음 1909년 전주로 이거했으나 그의 나이 39살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세상을 뜨게 된다. 바로 이 해가 보천교의 창교기원일이다. 강증산이 김제군 금산면 동곡리에서 39세로 요절한 다음 당시 문하의 신도들이 각기 분파하여 수많은 교파를 낳게 되었다.

증산을 교조로 하는 교파는 보천교와 금산사 경내 18단체를 비롯, 한때 80여개를 헤아렸다 하나 현재는 60여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다. 보천교와 대순진리회가 대표적인 교파이며 이외에 선도교, 미륵교, 태극교, 태을교, 삼덕교, 무극도교, 대법사 등이 삼남지방에 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산 사후 자칭 600만 교도를 자랑할 만큼 증산교계 종단 가운데 가장 교세가 컸던 종교가 바로 보천교였다. 보천교는 1909년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에 의해 창시된 신종교로 한국종교 사상 유례 없는 극적인 흥망을 보여준 종교다. 그 극적인 과정이 불과 10년 안에 일어났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급격한 성장을 시작하여 1922년에 거대한 보천교 성전을 착공하고, 1923년에는 수십만의 신도를 가진 사실상 한국 제일의 종교로 우뚝 일어선 것이다. 보천교는 교세가 확장되자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으며, 언론 출판사업의 일환으로 1923년 10월 월간지 『보광』(普光)을 창간하고 보광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했다. 이어서 당시 말썽 많았던 『시대일보』(時代日報)를 인수했다. 또 자급자족을 위해 입암면 대흥리에 직물공장과 염색공장을 세웠으며, 갓공장, 농기계공장도 세웠다. 대중문화운동으로 100여 명으로 편성되는 대규모의 '보천교농악단'을 조직하여 풍물을 적극 권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날 정읍농악이다. 1924년에는 보천교 내에 '기산조합'(己産組合)을 조직하여 수공업을 통한 산업진흥을 도모했다. 한편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보천교 청년단'을 조직하고 여성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 '보흥여자사립수학'을 설립했으며 '보천교 소년회'를 조직하는 등 신교육과 소년운동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밖에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민립대학설립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일본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천교의 '천자등극설'은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민중을 일거에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천자등극설은 비록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민중의 정치운동이요, 조직과 정치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려는 현실정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을 결성함으로써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식민지 정책에 이용당할 수 있는 약점을 갖게 되었고, 민족종교인지, 사이비종교인지 갸웃하던 일반의 인식에 보천교는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을 굳히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시국대동단은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일부 인사가 떨어져 나와 보천교와 합작하여 조직한 단체로 강령은 '내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시 세간에서는 "보천교는 '제2의 각파유지연맹'이며, 종래 일종의 의문으로 주목받던 보천교가 금번에 친일로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는 풍문이 있었다.

이와 같이 친일과 항일의 양면성을 띈 보천교 운동은 근대적 민족의식이 없었고 조선총독부와 도시 지식인들의 협공으로 인한 노선의 혼선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보천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억압 하에서도 기구를 조직하고 웅대한 교전을 축조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건물 일체가 모두 해체되었다. 그러나 성전 건물인 십일전은 현재 조계사 건물로 복원되어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정문인 보화문은 내장사 대웅전으로 복원되었으나 최근 화재로 소실되었다. 일부는 일제가 민족의식을 가진 보천교를 탄압하면서 건물을 장작으로 뜯어서 팔기도 했다.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보천교주 차월곡의 정치적 성향과 자금 동원력

독립운동 자금지원은 그 액수와 일의 성격상 교주인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보천교를 창시한 차월곡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차월곡의 인물됨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흔치 않으나, 다음 자료를 통해서 그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차월곡을 비롯한 강일순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동학도인들이 많았다. 증산은 24절후에 맞추어 24수제자를 두었다. 그 가운데 차경석(車京石/정읍), 차윤경(車輪京/정읍), 김형렬(金亨烈/동곡), 김자현(金自賢/동곡), 김갑칠(金甲七/동곡), 김준찬(金俊贊/동곡), 김병욱(金秉旭/전주), 이화춘(李和春), 박장근(朴壯根/순창), 김병선(金炳善/함열), 김보경(金甫京/함열), 신원일(辛元一/부안) 등 12명이 동학도인이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증산 사후 보천교를 사상적 · 정치적 성향이 강한 종교를 위장한 단체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보천교에 쉽게 뛰어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1910년대에는 24방주제와 같은 비밀 조직체를 운영하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갔으므로, 일부에서는 정치적 성향의 비밀 결사체로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일제는 지방에서의 초기 보천교 운동을 정치적 실체로 파악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었다.

둘째, 당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보이는 진주 사람이 차월곡을 만나고 느낀 소회에서도 차월곡을 정치적 인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라는 제하의 글에서 자신을 비봉산인(飛鳳山人)이라고만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차씨를 보려고 정읍에 가기는 금년(1923) 4월 중순경이다. … 나는 본래 종교보다도

정치에 취미를 많이 두고 또한 차씨를 종교적 인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 인물로 본 고로 보천교에 대한 진리여하는 묻지 아니하고 먼저 시국문제를 말하였다. … 장래 조선이 독립되고 보면 무슨 정체(政體)를 쓰는 것이 좋으냐? 고 물었다. 차씨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있다가 말하기를 "그것은 그때 일반 인심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 라 한다. … 세상 사람은 차씨를 일개 미신가요 또한 무식자로서 다만 우민을 유혹하여 금전을 사취하는 자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는 그렇게 무식한 이가 아니다. 비록 현시대의 지식은 결여했다 하더라도 구시대의 지식은 상당한 소양이 있다. 그 외 엄격한 태도와 정중한 언론은 능히 사람을 감복케 할만하다. 그는 한갓 미신가가 아니요, 상당한 식견이 있다. … 그를 차천자라 하는 것은 결코 그가 자칭한 것이 아니요 몽매한 교인과 비소(鼻笑)하는 세인이 칭호한 것이지만은 그의 여러 가지 용사(用事)하는 것을 보면 제왕될 야심이 만만한 것을 추측하겠다.

좀처럼 일반인들에게 면회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월곡을 직접 대면하고 쓴 이 글은 소문과는 다른 차월곡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그는 이 글에서 차월곡을 상당한 인격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하고 더불어 정치적 인물로 보고 있다.

셋째, 재가 수행 모임인 선도회(禪道會)의 초대 지도법사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1905-1990) 노사(老師)가 차천자를 직접 만나고 난 뒤의 소회를 적은 글이 있다.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한 것은 전라북도 정읍에 갔을 때 보천교 교주인 차천자를 만난 일이다. 본명은 차경석인데 자칭 천자였다. 나는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 … 그 때 본관(대법당)이 준공되었으나, 도 경찰국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므로 개관은 못하고 폐문하고 있었으나, 특정인에게는 보여주었다. 불교법당처럼 꾸몄는데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니 그 자리는 차천자가 앉을 것인데, 과연 천자 자리 같았다. 규모가 웅장했다. 결국 개관도 못하고 차천자 사망 후 보천교가 해산되었다. 그 건물은 서울에 옮겨졌고 현재 조계사 대법당이 그것이다. 이튿날 아침 면회했다. 몸은 뚱뚱하고 큰 상투에 대갓을 쓰고 얼굴은 구릿빛으로 까만 수염이 보기 좋게 나 있었다. 그 풍채가 과연 만인의 장 같았다. 저렇게 생겨야 무슨 일이고 할 수가 있구나 싶었다. 우선 체격이 좋고 외모가 잘 생겨야 협잡도 크게 해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첫 말에 불교는 포교가 자유롭지만 보천교는 경찰의 제재가 심해서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일제 때 사이비종교의 탄압이 심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 그 당시 이런 풍문이 있었다. 차천자가 머지않아 등극하면 벼슬자리를 준다는 말을 믿고 전답을 팔아서 바치고 그 벼슬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도 이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편할 것이다. 일제 치하에도 이런 사이비종교가 있었고 해방 후 경향 각지에 이런 종사가 발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 글에서 이희익은 보천교의 창시자인 차월곡의 당당한 풍채를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 보천교는 종교를 가장한 단체로,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사이비 종교였을 것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차월곡은 좌중을 압도할만한 풍모에 상당한 식견을 갖춘 지식인으로써 정치적 성향이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재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다. 성향이나 의지만 가지고서는 재정적으로 독립운동을 후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천교의 독립운동 자금지원은 교주인 차월곡의 의지는 물론, 보천교의 신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보천교의 신자수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자칭 6백만 신도를 자랑하고 있었다. 보천교에서는 100명의 인원을 포교해야만 간부 직책이 주어졌다. 당시 간부가 557,700명이었다 했으니 교단 측 주장처럼 600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1923년 조선의 인구는 1,700만이었다. 따라서 6백만 신도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천교 쪽 관련 자료인 『보광』(1923) 창간호 2쪽에는 수 백 만, 5쪽에는 6백 만, 9쪽에는 3백 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훈』 9쪽에는 교리와 강령을 정하고 사방에 선포하니 소문을 듣고 온 자가 6백 만이 된다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당시 교단 자체 내에서도 정확한 신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故) 이강오(李康五) 교수는 『한국신흥종교총감』(韓國新興宗敎摠監) 972쪽에서 200만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종교학계에서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1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보천교는 1918년 4,407명, 1919년 12,935명, 1920년 19,72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1925년 35,106명을 기점으로 이후에 신자가 감소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이만한 신자수를 가지고도 자금동원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현재 교금 모집 과정을 밝혀줄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엄청난 교금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방증 할만한 자료가 몇 가지 남아 있다.

하나는, 당시 신자들의 일부 치성금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1918년 제주도에서 강대거(姜大擧)가 성금 7만원을 면화 포대 속에 가지고 오다 발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였을 것이다.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 재산을 바치고 입암면 대흥리로 이주해 오는 탄갈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 정읍 대흥리는 평산 신씨(5호)가 터를 닦은 중흥과 연안 차씨(5호)가 자리 잡은 진목 그리고 김해 김씨(5호)들이 입주한 신평을 합한 한가로운 마을이었으나 보천교가 자리하면서 15호에 해당하는 한적한 마을이 갑자기 700여 호를

헤아리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들이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탄갈자였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천교의 핵심 브레인이자 명실상부한 실력자로 활동했던 이상호 · 이정립 형제였다.

마지막으로 보천교에서는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대흥리 2만평 부지에 40여 동의 웅대한 교전을 건축할 만큼 충분한 교금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천교 본소로 불렀던 이곳은 들어갈 때부터 나오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으며, 공사비용만 150만원이 소요되었다. 그렇다면 35,000명의 신자를 가지고서도 교단운영과 독립운동 자금지원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보천교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 자금지원

보천교는 사이비종교라는 일반의 인식과 달리 1925년 시국대동단이 결성되기 이전까지 사실 상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대부분의 민중은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언론이나 대중이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측면을 간과하고 도외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일제가 보천교를 보는 시각과 또한 동일한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차월곡은 상대적으로 탄압이 적은 종교를 이용하여 암암리에 민족운동을 지원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보천교가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표1〉 과 같다.

이 가운데 법정사 사건은 연구자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학계의 통설은 아직 없는 듯하다.

따라서 양쪽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그치고자 한다. 1918년 10월 남제주도 좌면(지금의 중문)에 위치한 법정사(法井寺)에서 보천교도의 항일 투쟁이 있었다. 차경석과 경북 영일 출신 김연일(金蓮日) 등이 서로 모의해 같은 해 9월 19일 구(舊) 맹란분회(孟蘭盆會)에 즈음하여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 30명을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들을 학대하여 조선 민족의 원수가 되었다. 이제 머지않아 '불무황제' (佛務皇帝)가 출현해 국권을 회복시킬 것이므로 교도들은 제일 먼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관리를 완전히 살해한 후 상인들을 몰아내야 한다." 며 이들을 설득했다. 10월 4일 밤부터 다음날 5일에 걸쳐 김연일은 그 부하들을 도내 각지에 보내 신도 33명을 법정사에 소집하고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결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방법을 협의해 대오를 정리한 다음, 부근 각 면, 리장에게 "일본 관리

를 소멸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므로 다시 장정을 거느리고 참가하라. 따르기를 꺼리는 자는 군율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라는 격문을 배포했다. 6일 밤부터는 제주성 내로 향해 행동을 개시하고 7일에는 중문리에 도착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 전소시켰다.

〈표1〉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건

발생일자	사건 명	내 용	출처(기사)
1918.10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	법정사 교도 30명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 습격, 방화 전소	明治百年史叢書 (1967)
1920. 9	태을교도 국권회복운동	조선독립 사상 고취	(동)1921.2.19
1920.12	태을교도 국권회복운동	조선독립 기도 성금 수합	(동)1921.4.30
1921. 5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태을교도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하여 운동 자금 징수	高警第13765號(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지원	나용균을 통해 임정에 전달	(동)1925.10.2
1921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전주에서 11만원 압수	(동)1922.2.24
1922	세계약소민족회의 참가여비 지원	차월곡이 최팔용과 장덕수 통해 1만원 지원	歷史批評(1989년 여름호)
1924	김좌진 장군 군자금 지원	2만원으로 무장대의 편성 가능	亞細亞局第3課關機授第32743號.
1924.3	상해 임정에서 보천교 본소에 군자금 모집	경찰에 체포	(동)1924.4.1
1925.11	조만식(趙晩植) 권총단사건	천진불변단장(天津不變團長) 조만식이 요인 암살, 군자금 모집 목적으로 본소에 잠입	(조)1925.11.21 (조간)
1925.12	정의부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 모집위해 비밀리에 잠입	(동)1925.12.11

사건 주모자 31명(재판기록은 34명) 가운데 김연일(金蓮日)과 정구룡(鄭龜龍), 강민수(姜敏洙)가 승려이고 박명수(朴命洙/一名 周錫, 命珠)만이 보천교 수령으로 되어 있어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들이 주동이 된 항일투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천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크게 작용했거나 세월이 흘러 불교로의 전향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은 관련자의 후손 상당수가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정읍에 그 본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주 보훈지청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제도 제주도 법정사 사건의 수령을 전라도 정읍 대흥리의 차경석으로 보고, 이들이 은밀히 국권 회복을 도모하면서 교도가 5만 5천에 달하면 일제히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종의 배일 음모 단체로 규정했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3 · 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

〈표2〉 강원도 태을교도 독립단원 검거자 명단

성명	나이	직업	주 소
김문하(金文河)	4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53번지
김정식(金貞植)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70번지
박정찬(朴貞燦)	3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74번지
김경식(金景植)	5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15번지
박경문(朴璟文)	21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이달제(李達濟)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70번지
한용서(韓龍瑞)	4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40번지
박명호(朴命浩)	6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임현한(林顯漢)	5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9통3호
조병하(曺秉河)	2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7번지
김원하(金元河)	4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68번지
김문환(金文煥)	2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6번지
진문협(秦文狹)	3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6통8호
김순발(金順發)	15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8번지

* 출전: 高警第13765號, 「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595쪽.

한편 1921년 5월 강원도에서는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 독립단원의 검거가 있었다. 태을교는 차경석이 증산 사후 교권을 장악하고, 1921년 보화교를 선포하기 전까지 선도교, 흠치교 등 증산계 교단를 통칭하여 불리던 명칭이었다. 일제가 조사한 이들의 혐의 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김문하(金文河)는 시천교(侍天敎) 신자로 배일사상을 가지고 오로지 동지의 규합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처가 질병이 있을 때인 1920년 12월 5일 태을교도로서 원산 지청에서 취조중인 이치홍(李致弘)을 방문했다. 이 때 이치홍은 "태을교를 신앙하면 처녀의 병기를 완전하게 낫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로 재액을 만나는 일도 없을 것." 이라는 말로 유혹했다. 이로 인해 김문하 외 2명이 입교하게 되었다. 1921년 2월 18일 이치홍은 김문하를 초대하여 태을교 이면의 목적은 국권회복에 있다고 말하고, "태을교 수령 차석정(車石井/필자주: 차경석 지칭)은 본년 중에 황제가 되려고 운동 중에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일치 협력하여 그의 목적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교주 차석정은 관통 공부라 칭하는 신술을 연구 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이 되면 세상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중을 나는 것도 자유롭게 되며, 신자 1인으로써 1백 만의 병사에 대항할 수 있기에 이른다." 고 했다. 따라서 금년 5월 이래 경찰 관리 및 일본 군대를 살해하는 것도 자유자재라고 말하고 또 태을교 수령이 조선국 황제가 되어 상당한 관직을 줄 것이라고 선

전했다. 김문하는 이를 흔쾌히 허락하고 박경문 외 9명을 입교시켜 3월 2일에서 동 17일 경에 국권회복의 운동자금으로 각자 12원씩을 징수했다.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표2〉 와 같다.

일제는 이와 같은 태을교도들의 국권 회복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태을교 전반에 관해 조사 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태을교도의 국권 회복운동에 관한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문경군 수순면 이화리 356번지 강진수(姜晋秀/21)는 대정 9년(1920) 9월 이래로 태을교 신자가 되어 교를 전도하며 조선독립운동하기를 진력하여, 교를 전하는 말끝에는 조선독립사상을 고취하며, 인민을 권고하여 독립을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 태을교에 가입하라 하며 책을 편찬하였던 바, 책에도 조선독립사상과 및 조선총독 정치의 변혁할 취지를 기재하여 인민을 선동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형사부에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기재하였거니와, 동법원에서는 작일 제2심 공판을 마치고 오는 20일에 판결 언도한다더라.

1921년 평양경찰서에서는 채선묵, 김규당을 검거하여 … 동교의 교조 강증산은 오는 을축년(1925)에 다시 살아나서 황제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동교 신도 중 유력한 사람을 관찰사…군수 등의 요직에 임명할 터이며, 일반 신도들에게도 다수 이익을 얻게 할 터이라 권유하고, 또 금년부터 오는 을축년까지 다섯 해 동안에는 세계가 크게 어지러워서 각국이 다 자기나라 진정에 전력을 다하고 타국에 간섭할 틈이 없을 터이므로, 그때에 강증산이 강림하여 조선 독립이 완성될 터이며, 내년에는 전 세계에 악한 병이 유행하고 채소 같은 것도 모두 그 독기를 받아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모두 병들어 죽게 될 터이므로, 동교 신도에게는 금년 9월까지 악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약을 제조하여 분배할 터이며, 각 도에 정리장 · 부정리장, 각 군에 정포교장 · 부포교장을 두고, 각 면에 정정의 · 부정의를 두어 신도 모집을 계획코저 한 것이라더라.

백희백은 재작년 음력 6월경에 태을교에 가입하여 은밀히 조선독립을 운동코저, 그 교의 교주되는 차경석이가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왕국이 되어 계룡산에 도읍하고, 태을교도는 모두 큰 벼슬을 한다는 허무황당한 말을 전파하여 교인을 모으고,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한국을 기념하고 제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도하였으며, 작년 음력 3월 경에는 신자에게 다수한 금액을 거둔 것이라더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보천교는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천교의 민족운동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규(林圭)가 보천교로부터 5만원을 얻어내 나용균(羅容均)

에게 전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 장덕수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가 하와이로 간다 하여 다시 나용균을 통해 임시 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실제로 임시 정부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나용균이 자금을 받은 즉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금이 임정에 전달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은 1921년 전주에서 발견된 11만원의 군자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아래는 당시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내용이다.

… 강일순이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지 몇 해 후에 계룡산에 재림하겠다.' 고 말했다는 풍설이 있고, 또 차경석이가 천자가 된다는 풍설도 유행하여 교도의 검거가 심하던 터에, 작년 봄에 전주에 모아 놓았던 돈 11만원이 압수되는 동시에 당국에서는 크게 놀라 상해가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으로 인정하고 크게 검거를 행하여, 강원도 일대와 삼남 지방에 수천의 교도가 검거되었고 …

라고 하여 일제는 전주에서 발견된 돈을 보천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군자금으로 파악했다. 이것이 임시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면, 임정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임정에서는 수립 초기 인도인을 고용해서 수위로 세우기도 했었는데, 정부 청사 집세 30원과 20원도 되지 않는 고용인 월급을 주지 못해 번번이 소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11만원은 임정의 회생 자금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1922년 고려공산당에서 세계 약소민족 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하기로 결의했을 때, 이에 대한 여비를 최팔용(崔八鏞)과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1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천교에서 김좌진에게 2만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1924년 김좌진은 자금 부족으로 부하들을 해산하여 활동 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보천교주 차경석과 연락이 되어 2만원의 군자금을 받아 다시 무장투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일제는 탐지하고 기밀문서로써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일제는 보천교를 배경으로 이같이 움직이는 김좌진의 활동을 탐지하고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1924년 3월 2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사람이 보천교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운동에 대한 차월곡의 의지는 보천교 수호사장(修好司長/외교업무 담당)을 지내다 상해로 망명했던 조만식(趙晩植)이 1925년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던 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만식은 1886년 8월 10일 평양부 상수리에서 태어난 인물로 1919년 4월 18일 북경과 인접한 항구 도시인 천진에서 명제세(明濟世) 등 8명과 함께 '천진불변단' (天津不變團)을 조직한 바 있다. 그는 이 조직에서 단장의 역할을 맡았다. 천진불변단은 1919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외곽단체로서 승인받았다. 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나 고하 송진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장을 지냈던 민세 안재홍 그리고 몽양 여운형도 모두 보천교에서 비밀리에 군자금을 가져간 인물로 후손들은 증언하고 있다.

1925년 12월에는 정의부 의용군 별동대원 세 명이 이춘산(李春山)의 인솔 하에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으로 대련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들어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잠입 목적은 보천교에서 20만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얻기 위해서였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정의부에 50만원을 지출하여 조선 동포들을 위하여 개척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1926년 11월에는 보천교로부터 30만원의 거액을 변통하여 민족운동 단체로 보내려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모두 보천교도로, 표면상으로는 보천교당을 짓는다는 명분을 세우고 자금을 변통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것을 기회로 보천교주 차경석의 환심을 사 보천교의 돈을 끌어내어 만주 방면에 보내기를 획책한 것이다. 이들이 끌어들이고자 한 30만원은 당시 침체 일로에 있던 임시정부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2년 이후 임정은 재정 수입이 급격히 줄어 정부의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전년도인 1925년 7월 만주에서 권총 두 자루와 탄환 40여 발을 비밀리에 가져와 경남 함양군 석하면 웅위리 민태호(閔泰鎬)라는 사람의 집에서 부호들을 위협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의논하고, 모두 경성에 올라와 활동을 준비하던 중 일제에 의해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들 네 명은 제령 제7호 위반 '강도예비급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 으로 기소되었다. 이때의 피고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3〉 피고인 명단

성 명	나이	본 적	주 소
정당엽 (鄭當燁)	33	전북 장수군 계북면 방전리	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한규숙 (韓圭淑)	38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서리	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조만식 (趙晩埴)	40	평양부 상수리 91번지	경성 통동 133번지
정찬규 (鄭燦奎)	40	평양부 수정(번지 불상)	평양부 수정(번지 불상)

* 출전: 『동아일보』, 1926년 11월 14일.

이상에서 서술한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인 측면을 정리하면, 1920년대 초반에는 태을교라는 이름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는 1925년 이후에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또 교주 차월곡은 정치적 성향이 다분했던 인물로 일제 강점 하에서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인식하고 조선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때(1925년) 보천교의 교리 및 대동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탄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일본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이 가까워지자 3천 원이라는 거금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교단의 존속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정교분리론을 당시 대부분의 종교가 수용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꼭 보천교에만 국한시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즉 학계의 지적처럼 일제의 강요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친일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문제를 삼는다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친일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보천교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었다. 『보천교연혁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관에서는 배일 단체로 지목 받아 취체가 비상하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 분자로 오인하여 공격이 무쌍하니 양간에 처한 교도는 고립 상태로 호소 무처하다.

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보천교는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 민중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조선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1936년 56세의 나이로 차월곡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신자들이 이탈하고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탄갈자(殫竭者)들은 재물을 사취한 사기 행각이었다고 억울해 했을 것이다.

보천교 '천자등극설(天子登極說)'의 배경과 실체

일제강점기 거대한 민중을 조직해 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차월곡이라면, 차월곡의 천자등극설은 민중을 일거에 조직해 낼 수 있었던 현실적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당시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의 대안이요, 계급적 · 민족적 모순조차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피안의 해탈처로 비춰졌던 것이다.

보천교운동의 최종 목표는 새 세상 만들기이며,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천자등극설은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필연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본고에서는 당시 민중 조직의 근거가 되었던 보천교 천자등극설의 배경과 세간에 알려져 있는 보천교 인식을 소개하며, 등극설이 갖는 당시 사회적 · 시대적 의미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보천교는 민족 · 민중운동의 구심체였으며, 따라서 종교조직을 내세운 정치운동 단체로 보고자 한다. 물론, 1930년대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보천교는 종교제도화를 꾀한다.

천자등극설의 배경

세간에는 월곡이 천자등극설을 유포하여 교세를 확장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일제의 교단 탄압의 이유에서였다. 한편 세간에서는 실제로 월곡이 천자등극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꾀한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정읍 입암 대흥리 보천교 본소로 수 천 호가 이주를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등극설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등극설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며, 종교 조직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배경

1919년의 3 · 1운동은 일제의 잔인한 무단통치와 경제적 착취, 그리고 민족운동의 탄압으로 일어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운동이었다. 그러나 3 · 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물론 3 · 1운동은 성공적인 운동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무튼 본고에서는 3 · 1운동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고자 한다. 다만 3 · 1운동을 통해서 형성된 한국 민족의 높아진 정치의식이 천자등극에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천자등극설이 유포되던 1920년대는 독립운동의 방향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던 시기였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실력양성론을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었고, 해외에서는 무력항쟁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소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1920년대는 한국 사회운동의 황금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계몽적 문화운동의 전성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력양성을 주창했던 자들이 일제말기에 대부분 친일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당시 보천교에서 독립을 염원하며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추진했다고 하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월곡의 천자등극설은 3 · 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 민족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시기에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세간

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종교적 배경

『천지개벽경』은 증산을 너무 신비스러운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나 『대순전경』에 없는 내용이 많이 보완이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천지개벽경』에 차월곡의 천자등극에 관한 내용만 간추리고자 한다. 인용된 글을 통해서 당시에 차월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동학이 본래 보국안민을 주창하였음은 후천의 일을 부르짖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기 왕후나 장상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 그들은 원한이 창천하였다. 그러므로 그 원한을 품은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서는 역모도수에 걸려 정사(政事)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신명(神明)들의 원을 풀어줄 두목을 정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차월곡이 열두 제국을 말하니 이것은 두목을 자처한 것이다.

즉 동학이 실패한 것은 후천 선경세계 건설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서로 왕후장상을 꿈꾸고 두목을 자처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두목을 자처하고 있는 차월곡에게 경고한 것이다. 증산이 월곡을 경고하는 내용 가운데 천자등극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글들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하루는 대흥리에 계시더니 가라사대 "경석아. 너는 평생의 소망이 있을 터이니 나에게 말해보라." 경석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을 망설이니 또 가라사대 ""무엇을 망설이는가. 네 마음속에 있는 지극한 뜻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라." 대하여 가로대 "평생 소원은 돈을 한번 물 쓰듯 하는 것입니다." 상제 홀연히 놀래시며 탄식하여 가라사대 "너는 덕을 물 쓰듯 쓸 생각은 없느냐. 재물에 낭패하는 기운이 붙어 있을까 근심하노라. 그러나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니 때가 오면 천하의 재물이 너한테로 몰리거든 네가 선하게 쓰면 능히 천하대복을 누릴 수 있으되 나쁘게 쓰면 천하대화를 부르게 되리라." 하시고 백포를 가져오라 하사 들보에 걸게 하시고 공우(公又)에게 북을 치게 하시고 경석에게 춤을 추게 하시며 가라사대 "경석아 너의 운수가 모자라서 너의 선조에 구월산 금반사치(金盤死雉)의 혈음(血陰)이 있으므로 지금 옮겨와서 너의 몸에 붙이려 하는데 장풍이 있어야 발음(發陰)이 되리라 하시더니…"

정미 가을에 공신(公信)의 집에서 공사를 보실 새 제자들로 하여금 대도주(大道呪)를 밤새워 수련케 하시고 가라사대 "선천에는 수명을 먼저 하고 복록을 뒤에 하였으나 나의 세상에는 복록을 먼저 하고 수명을 뒤에 하나니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는 걸인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고 종이 한 조각씩 나누어주시며 가라사대 "후천음양도수(後天陰陽度數)를 보려 하나니 각자 남들이 모르게 마음에 있는 대로 점 하나로 아내 한사람씩 표하

여 점쳐라" 하시니 각자 마음대로 점쳐 올리니 공신은 한 점이오. 응종(應鍾)은 두 점이오, 경수(京洙)는 세 점이오, 내성(乃城)은 여덟 점이오, 경석은 열 두 점이라, 상제 보시고 가라사대 "경석아 너는 아내를 열둘이나 원하느냐" 가로대 "12제국에 각기 하나씩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
또 일러 가라사대 경석의 아비가 일찍이 동학접주요, 경석이 또한 총대라. 그러므로 동학란에 죽은 모든 신명들이 이 자리에서 해원되리니, 뒷날 두고 보라. 경석이 왕후 못지않게 금전도 무수히 소비할 것이오, 사람 수효도 갑오년 동학란 때 보다 훨씬 많게 되리라. 이렇게 풀어놓아야 후천에 가서 아무 일도 없게 되리라."

하루는 경석이 상제께 가로대 "세상 사람들이 저의 행보를 용행호보(龍行虎步)라 하나이다." 상제 들으시고 웃으시며 말뜻을 풀이하시며 가라사대 "경석아, 용행호보의 본분을 알면 나라와 집안이 흥하고 본분을 모르면 나라와 집안이 망하게 되느니라. 나는 천지가 베푸는 복록을 다 가졌으니 마음을 잘 닦아서 나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 하시니라." 한 제자 여쭈어 가로대 "오늘 경석이 행보를 자랑하니 남들이 말한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입니다." 하니 가라사대 "자기 분수를 알면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공덕으로 쌓는 길이 열리리라 하시니라."

무신 여름에 상제께서 대흥리에서 공사 보실 새 제자들에게 이십일일을 기한하여 새벽녘에 한 시간씩 잠자고 주야에 걸쳐 잠을 못 자게 하시더니 만기가 되어 모두가 피로하되 이 피로를 이기지 못하여 집 앞 버드나무 아래 누워서 깨어나지 못하거늘 상제 바라보시고 가라사대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장차 죽으리라" 하신대 형렬(亨烈)이 물어 가로대 "경석이 장차 역모를 꾀하나이까. 가라사대 천자 밑에서 천자를 도모하면 반드시 역적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깊이 삼가야 하느니라."

위 글을 살펴보면 증산은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예고까지 하고 있으며, 차월곡에게 탐욕을 멀리하고 재물을 올바르게 쓸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동학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차월곡은 12제국을 가져보겠다는 웅대한 꿈과 자신의 행보를 용행호보라 스스로 칭하고 있는 대목에서 천자를 꿈꾸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세간의 천자등극설에 대한 인식

세간의 보천교 인식

동아일보(1921. 6. 21(음), 1924. 9. 1(음))에는 월곡이 새 왕조가 개창될 것에 대비하여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팔았다고 고소하는 내용이 있다. 즉 월곡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하고, 확보한 신자들을 기반으로 천자로 등극,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이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전곡을 사취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교도 가운데

월곡에게 악감을 품게 된 김송환(金松煥)이라는 자가 1916년 전주 일본헌병대에 고발한 사건도 바로 천자등극과 관련되어 사취된 금품 문제였다. 1939년 인정상관(여처자파)을 따르던 서상섭이 김낙두(金洛斗)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키 위해 나주로 가던 중 일경에 연행되었다. 그때 조선이 독립되어 세계 일등 국민이 된다는 내용의 보천교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았다. 1929년 6월 4일에는 박종하(朴鍾河), 문정삼(文正三), 채규상(蔡圭象) 등이 합동하여 교주에게 보관한 금전을 반환하여 주도록 무고(誣告)하여 허설(虛說)을 작(作)하여 환원하되 천황폐하에 대하여 불경죄 및 내란죄가 있으니 또 교주가 등극한 후에는 관직을 수(受)한다고 사기취재(詐欺取財)하고 옥새(玉璽), 곤룡포(袞龍袍), 면류관(冕旒冠), 용상(龍床) 등 황실 물품을 준비하고 매사에 조견례(朝見禮)를 수(受)한다고 고발했다. 1930년에도 교도인 이원유(李元有)가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고발을 했다. 다음 해인 1931년에도 정읍 진산리에 사는 강재우(姜在右)가 방주(方主)인 조제승(曺悌承)의 소개로 3,000원을 납입하면 관작을 수여한다는 명목으로 교주가 금전을 사취했다고 고발했다.

이렇게 차월곡은 헌병대에 구속되어 정치적 음모와 금전사취의 혐의로 여러 차례의 심문을 받았지만 대부분 물증이 없거나 증거불충분으로 10일 또는 20여일 만에 풀려났다.

아무튼, 교의 갈등은 교금과 관련이 있으며, 거액의 교금은 천자등극설의 실체 인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금의 행방과 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등극설의 실체를 보다 명료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거액의 교금 행방

교인들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이 차월곡 개인의 사복을 채우기 위해 흘러 들어갔다면 그 풍부한 자금력을 일제가 묵인했을 리 없다. 실제로 차월곡은 일제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교금을 분산관리하고 있었으며 여름과 겨울에도 각각 2벌씩 외에는 별다른 옷이 없어 그 옷으로 사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었다. 지금도 아들인 차용남(車龍南)이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하고 있다. 또 요 한번 깔지 않고 평생 잠자리를 했을 만큼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했다. 지금 남아 있는 총정원(總正院)이나 내정원(內正院) 건물은 보수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이다. 그런데도 세간에서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성금으로 대궐과 같은 집을 짓고 호화스런 생활을 한 것으로 월곡의 삶을 왜곡시켰다고 한다.

월곡은 재물에 별다른 욕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신자들로 하여금 교금을 빼먹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사태로 번지게 된다.

이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1년 2월 10일 교인 김영두(金英斗)가 김홍규(金烘圭)의 구금 사실을 알고 김홍규가 보관한 교금을 몰래 취득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김영두는 교주의 친명을 사칭하여 봉치금 103,730원을 몰래 취하여 43,730원은 정읍군 내장면 월성리의 친부의 집에 분치하고 나머지는 친근한 방주와 가까운 교도의 인심을 매수하는데 써버렸다. 이 가운데 43,730원은 1923년 2월 19일에 국고로 편입되었다. 1921년에 권석두(權錫斗)는 함양경찰서에서 500원을 받고 교주를 잡아주기로 자처하고 나섰다. 1922년 7월 차월곡의 모친상에 이원유(李元有), 이병엽(李炳燁) 두 사람이 외당(外堂) 감독으로 시무(視務)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병엽이 술에 취해 진흙탕 가운데 누워있자 이원유는 호주머니에서 교 공금 600원을 꺼내 써버렸다. 1923년 11월경에는 소한주(小寒主) 채경대(蔡慶大/전남 무안군 비금면/채규일의 친제)가 제주 교도들에게서 받은 교금 2만여 원을 수취하여 낭비한 일도 있었다. 1925년 8월에 평남 진정원을 평양부내에 매수 설립하여 그 대지 및 건물 증명을 금방주(金方主) 채선묵(蔡善默)의 단독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채선묵 사후에 아들 규상(奎象)에게 평남 진정원장을 겸임케 했다. 규상은 이를 기회로 상속증명을 얻어 몰래 팔아버렸다. 1925년 9월에는 이달호(李達豪)가 경성진정원장에 재임 중 기녀를 작첩하여 공금을 소비하였다. 또 1928년에는 민영성(閔泳晟)이 경북진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기녀를 작첩하여 공금을 낭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교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차월곡이 사사로이 교금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 1922년 임실군 도덕동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할 때는 수중에 현금이 없을 정도였다. 또한 1931년에는 재산권을 총정원에 모두 양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월곡이 교금을 분산 관리하였던 게 아닌가 한다.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제의 자금추적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며, 둘째로는 보천교 운동의 순결성을 대내외에 내보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천자등극설의 실체

세간의 오해

학계에서는 보천교가 상해임시정부에 적지 않은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을 이미 연구 발표한 바 있다. 보천교에서는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규에게 5만원을 전달했으며, 한규숙을 통해서 3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시정부에서도 풍부한 자금력과 자칭 600만 신자를 자랑하는 보천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을 법하다. 또한 1918년 10월 남제주도 좌면(지금의 중문)에 위치한 법정사(法井寺)에서 항일무장봉기가 있었다. 그밖에 보천교와 관련된 것으로 조만식(趙晩植)의 권총단 사건을 들 수 있다. 조만식은 보천교의 수호사장(외교 담당)을 지내다가 상해로 망명했으며, 1925년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다.

1929년 9월에는 정읍경찰서로부터 엄밀한 수색을 받은 바 있었다. 금방주인 김규찬(金奎燦)의 백형인 경북 예천군의 김규정(金奎定)이 의병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와 탄환 10여 발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정읍경찰서에서는 김규정을 구속하여 보천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구입하여 분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일제는 보천교의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영호(李英浩)가 『보천교연혁사』(普天敎沿革史) 속편 발문에 쓴 글을 보면 "관에서는 배일단체로 지목 받아 취체가 비상하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분자로 오인하여 공격이 무쌍하니 양간에 처한 교도는 고립상태로 호소무처하다." 고 하였으니 여기에 보천교의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새 정부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전근대적이었고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대내외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천자등극 논리

교중천자(敎中天子)

유교의 근본이 '성인을 계승하고 사람들을 계발'(繼往聖開來學)하는 것이라면, 보천교는 '성현의 학문을 이어 받는 것과 세상을 건지는 일'(兼濟世之業)을 겸했다는 것이 유교와 다르다고 후손들은 강변한다. 여기서 유교와 다른 점을 강조하면서 세상을 건지는 일을 겸했다고 하는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곡은 기미년 경고문에서 "선비들을 미워한 것은 선비들이 세상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고 했다. 또한 "도덕이 없으면 고기가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큰 연못의 고기가 가뭄을 만나니 이제 내가 우물의 주인이 되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 세상을 책임지고 구제하려고 한다. 앞으로 반드시 시기가 올 것이라 믿고 있다." 고 하였다. 덧붙여 차월곡의 3남인 차봉남은 차월곡이 일 관헌에 진술할 때 "왕휘지가 필중천자(筆中天子)라면 이태백은 시중천자(詩中天子)이며 나는 교중천자(敎中天子)일

뿐이다. 나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서 천자는 교인들이 붙여 준 단순 칭호에 불과하다며 끝까지 천자등극을 부인했다. 또한 1921년 교명과 교주취임 선서를 했음에도 차월곡은 교인들이 주인장이라 불러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1921년 황석산(黃石山)에서 국호를 '시국 '(時國)이라 하고 교명을 '보화교' (普化敎)로 고천제를 지냄과 동시에 교주의 자리에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독립된 국가를 선포한 만큼 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차월곡이 원하든, 원치 않던 보천교가 비공식적인 정치의 장으로 옮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차월곡은 황석산 고천제에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와 같이 구체화한 것이다. 1916년 김송환(金松煥)이 차월곡이 황제가 된다는 말로 농촌의 어리석은 농민을 꾀어서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고발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보천교 연혁사』 상권 10쪽에는 1919년 60방주와 협의하고 교주를 선생으로 숭배하고자 하니, 교주가 도덕이 숭고하여 사위(師位)에 거(居)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을 선생으로 숭배함이 가하다 하였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교주를 상종함에 다만 주인장이라 칭호 하였다 한다. 언어에서도 서로 경대하여 상하의 구분이 없이 지내 왔으므로 교주께서 이전과 같이 지내고자 함이라 하였다. 여기서 '교중천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인들이 월곡을 평소 '교중천자'로 인정했다면 당시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방주협의에서도 천자로 불렀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의 심복인 채규일(蔡奎壹)은 차월곡을 폐하라고 불렀다. 그런데 교인들이 천자가 아닌 선생으로 숭배코자 하니 차월곡이 이를 정중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결과 예언

천자등극설 외에 또 한 가지 민중들을 흡입할 수 있는 요건을 든다면 아마도 정도령 신앙일 것이다. 일제 때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한 정도령 신앙을 이용한 것은 보천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심지어 『정감록』을 가지고 교지를 세운 것이 태을교라고 몰아 부치는 언론도 있었다.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서도 '흠치교 · 태을교 등은 모두 『정감록』의 자구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하였고……그러나 단 하나 본교를 믿는 자는……신앙의 후박과 포교공적의 경주에 따라 작록을 받게 된다.' 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조선인들은 이러한 정도령 신앙이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현실생활에서 큰 위안과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정도령 신앙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도 『정감록』을 깊이 신봉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

었을 것이다. 『정감록』 비결에 "광축(光丑)이 수변괴(雖變怪)이나 증산이 통구하(通九夏)" 라는 구절이 있다. 광축은 광무황제 신축년을 뜻하며 신축은 증산이 성도한 해(1901)이다. 이 때에 증산의 교가 구하에 통달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동 비결에 "모악산 하에 금불(金佛)이 능언(能言)하니 천관산(天冠山) 하(下)에 금인(琴人)이 봉새(奉璽)라" 이 구절은 모악산 아래 금산사 미륵불의 화신 강증산이 창교함으로써 천관산(입암산) 머리에 금인(차경석)이 옥새를 받들어 제위에 등극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입암산 정상에 있는 바위 모습이 마치 임금(사람)이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 새 시대를 열어갈 도읍지와 안위를 도모할 피장처인 십승지 가운데 7번째인 진목(鎭木)을 이곳 정읍에 대비시키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란을 피하여 미래를 도모할만한 곳이라는 이야기이다. 즉 노령지하(蘆嶺之下) 10리 지점에 피난처가 있는데 사답(寺畓) 7두락이라 한다는 이야기가 당시에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고, 또한 "진목개화(眞木花開) 만목춘(萬木春) 정해수류(井海水流) 사해원(四海源)"이요 이라는 말이 당시 교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즉 진목에 꽃이 피면 만 가지 나무에 꽃이 피고 정해에서 솟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사방 바닷물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 대흥리는 예전에 주변이 온통 참나무 밭이었고 중흥, 진목, 신평으로 이뤄진 한촌이었다. 여기에다 "구인종어양백"(求人種於兩白)이라는 속담까지 가세했다. 이를 증산은

제령봉(帝令峯)을 13척 깎아 내려서 장차 천하의 교당을 세우게 하리라. 그 때가 되면 만국 사람이 이곳에 와서 역사(役事)하게 되리니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리라. 하늘이 옥주(玉柱) 일곱 개를 갈물 했다가 그때 기둥으로 쓰게 하느니라." 제자 물어 가로대 "제령봉의 이름이 이때 비로소 이름을 빛내게 되오나 천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당을 세우는 때는 언제쯤 되나이까?" 가라사대 "그때는 그리 멀지 않으나 너희들이 마음 닦기가 급하니라.

라고 하여 입암을 종교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천자등극 운동의 실체

천자등극의 시도

월곡은 1921년 경남 함양 황석산에서 국호를 '시'라 하고 교명을 '보화교'로 선포하였다. 이같이 교단을 공개한 것은 등본(藤本) 고등과장의 회유에 넘어갔기 때문이

다. 그러나 교 조직을 공개한 뒤에도 일제는 처음 약속과 달리 관청의 취체를 중지하지 않았다. 이 고천제를 계기로 차월곡이 천자로 등극하기 위해서였다는 소문이 당시에 파다하였다. 특히 보천교는 정읍 입암에 본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상도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고천제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또 이를 기점으로 경상도 신자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다. 또 고천제 당시 "출어상림(出於上林) 운무중(雲霧中)에 성인이 나온다. "는 비결이 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고천제를 행한 뒤 차월곡은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뚫고 피신함으로써 신비스러운 면이 더 부각되어 신자가 더 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황석산 고천제는 교주가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킨 단순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관련자의 증언이나 관련서적을 참고해 볼 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닐 듯싶다.

월곡의 3남인 차봉남은 어렸을 적 부친으로부터 내가 3번 일어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차봉남이 부친인 교주 차월곡과 보천교 협정원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로, 1차는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난 뒤에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나 2,3차 계획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이강오는『한국신흥종교 총감』에서 천자칭호가 천자등극설에 따른 사회인의 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교세가 날로 확장되어 보천교가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일본이 만들어낸 유언비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천자등극설이 유포되자 총독부는 일본 황실에 대한 불경행위라며 고등법원에 넘겨 정읍검사국에 지시, 보천교 간부 십 여 명을 호출하여 취조한 뒤에 월곡을 호출하여 심문할 만큼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결과는 신도들이 폭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이 사건을 문제 삼지 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이것은 일본이 만들어낸 유언비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곡이 천자등극을 통해 실제로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다음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십일전 건립

용은 예로부터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을 상징했다. 또한 중국의 등용문의 고사에서처럼 입신양명의 상징이기도 했다. 본소 상징 건물인 십일전의 성탑 계단 양쪽에 용트림하는 모습을 목각해 놓았으며, 성탑 기둥 역시 나무로 새긴 용을 도금으로 처리하였다. 사실적이면서도 화려한 그 모습은 장엄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십일전의 정문인 삼광문 입구 또한 양쪽에 용의 머리를 조각했다. 교 본소 신축 당시 차월곡이 자칭 '천자'라 하고 천자의 대궐은 황와로 이는 법이라 하여 황와를 구워 이었으

나 경찰의 호령으로 다시 보통기와로 이은 적도 있었다. 십일전은 건평 136평에 높이 87척, 총 공사비 50만원으로 5개년의 시일을 요하였다. 목조 건물로는 그 웅장함과 정교함이 반도 내에 최대라 하였다. 십일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건물로 길이는 100자였으며 광이 50자였고 기둥이 24자였다. 경복궁 근정전의 건물이 정면 5칸, 측면 5칸 건물임을 감안할 때 궁전건축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십일전 내에는 성탑이 있었고 중앙에 입암산을, 왼편에 삼성봉을, 오른편에 방장산을 그리고 산 위에는 해, 달, 칠성을 그린 벽화가 있었다. 경복궁 근정전의 '오봉산일월도'(五峰山日月圖)를 연상케 하는 벽화다. 십일전을 오르는 기단석에는 연꽃봉우리를 조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며, 십일전 양 측면에는 경복궁 근정전과 같은 해태상이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이외에 천자등극 상징물로 종각을 들 수 있다. 현 입암면 대흥리 당산나무 맞은편 대동직물 자리에는 동정각(動靜閣/1924년)이라는 종각이 있었다. 각세종(覺世鐘)이라 명명된 이 종은 당시 교인들이 수저 1개씩을 거두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거대함이 경주의 인경이나 종로의 인경보다 낫다고 까지 했다. 당시 신도들이 낸 수저 한 개씩을 거두어 만들었다는 것은 신도들의 결집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이로써 또한 신도 수를 가히 짐작할 만 하니 차월곡은 이 거대한 종을 만듦으로써 교세를 과시하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종을 만든 목적을 천자등극을 위한 사전준비로 보고,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군함 · 현종제조. 등극할 때 울리려다 종부터 깨여져' 더욱 기괴한 것은 군함을 만드느니 인경을 만드느니 하여 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교도들로부터 그릇 숟가락 등속을 모아 작년 구월 중부터는 우선 인경을 먼저 만들기로 하여 동짓날 그 인경을 울려가며 등극한다고 하던 것이 미쳐 다 되기도 전에 그만 우연히 깨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에서 볼 수 있듯이 차천자라는 칭호는 교인들이 붙인 것이 아니고 월곡 자신이 붙인 칭호이며, 일정한 신자가 확보되면 천자등극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증산은 월곡이 용이 되지 못하고 이무기가 될 것이라 하여 실패할 것을 예언했다. 그렇다면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고로 할 때 아들인 차봉남의 구술이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천교에서 일본을 3번 치려 했으나 실패하고 교인들이 부산에서 체포되자 신도 가족들의 생계와 자급자족을 위해 이때부터 직조공장을 세우고 수원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도록 한 것이다. 천자등극은 암울했던 당시 사회의 민중과 지식인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일제

의 경제침탈인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일어난 기미년독립운동이 무위로 끝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만석부호들이 앞을 다투어 재산을 바치고 교단의 간부로 임명이 되었다. 그러자 일제는 한때 만주국의 황제로 가라며 차월곡을 회유했다고 하기도 하고 상해 임정에서는 주석제의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당시 수백만 신도를 거느리는 교주로서 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좋은 예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풍설은 오히려 민중을 자극하고 흡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증산의 예언과 풍수

증산이 대흥리에서 공사(公事)를 볼 때였다.

만고춘추아방궁(萬古春秋阿房宮)이오, 천추일월동작대(千秋日月銅雀臺)라. '만고역사 가운데 춘추시대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고, 천추에 일월처럼 빛나는 것이 조조의 동작대니라.' 라는 글을 써서 월곡의 방벽에 붙이라 하였다. 이때, 수제자 형렬이 물었다. "아방궁과 동작대는 진시황과 위나라 무왕이 지은 건물인데 장차 대도하(大道下)에서 그러한 건물이 이곳에 짓게 되나이까?" 말하대, "이 후에 그와 같은 건물이 반드시 이곳에 세워지리라" 또 말하대 "이후에 혹 환부역조(換父易祖)하는 사람과 혹은 역적을 도모하는 사람과 혹은 난법(亂法)으로 백성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진대 엄한 경계를 하여 반성토록 가르쳐야 하느니라

이외에 증산은

천하 자기신은 고부로 운회하라. 천하 음양신은 전주로 운회하라. 천하 통정신(通情神)은 정읍으로 운회하라. 천하 상하신은 태인으로 운회하라. 천하 시비신은 순창으로 운회하라.

고 하였다. 또 하루는 제자가 묻기를

대병(大病)이 우리나라에 먼저 옴은 무슨 연고입니까?" 하니, "병을 고치는 도가 우리나라에 있음이니라." 라고 하였다. 제자가 다시 "대병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느 지방에 먼저 오게 됩니까?", 말하대, "호남에서 먼저 터지니라." 제자 "대병이 호남에 먼저 옴은 무슨 연고입니까." "병을 고치는 도가 호남에 있느니라." "호남 어느 군에 먼저 당하게 됩니까?" "정읍, 군산, 나주에서 먼저 시작하느니라." 제자 "대병이 호남 3군에서 먼저 시작함은 무슨 연고입니까?" 가라사대 "나주는 망하는 운수요, 군산은 고기의 배와 같고 정읍은 세상을 건지는 법도가 천명을 받아서 때를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풍물의 장단에 정적구(正赤求)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 정씨가 졌다는 뜻이라 하고 또 정작궁(井作宮)이라 하니 무슨 뜻이오니까? 가라사대 두 말에 일리가 있으니, 정작궁은 정읍에 천하의 대궁이 서는 뜻이라.

하여 대병이 닥쳐도 정읍에 병을 건질 천하의 법도가 있다 했으며, 정읍에 대궁이 들어설 것이라 하여 차기 도읍지로서의 정읍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결이나 예언서적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 한학에 능통한 지식인들이었을 것이다. 당시 한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정감록』이나 『토정비결』과 같은 책을 한 권쯤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비결에 정읍의 풍수지리와 차월곡을 관련지으면 쉽게 보천교에 가입했으며 곧바로 정읍 이주를 결정했다고 한다. 또 입암면 대흥리는 오행이 상생하는 명당이기 때문에 보천교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월곡은 『정감록』과 음양오행 그리고 풍수지리에 근거하여 대흥리에 본소를 두게 되었고, 여기에 증산의 유훈과 각종 기록에 나타난 정읍의 상징성, 그리고 갖가지 속담을 결부시켜 정읍을 종교적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부각시켰던 것이다.

끝맺으며

2000년대 들어 민족운동에서의 종교계 역할과 위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유림계의 이항로, 기독교계의 이승훈, 불교계의 백용성, 대종교의 나철, 천도교의 손병희 등 민족 운동에 기여한 종교계 지도자들로 국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성 종교의 지도자급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자생종교 가운데 보천교와 같이 이미 교세가 기울었거나 일제강점기 유사종교로 낙인찍힌 종교들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보천교를 새롭게 인식하는 관점에서 쓴 글들이 이미 몇 편이 나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천교의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보천교의 자금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되었다면 그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22년 이후 임시정부는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독립운동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김좌진에게 군자금을 조달한 점, 고려공산당에서 세계 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과 여운형, 나용균, 장덕진 등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여비로 1만원을 지원한 점, 재만 독립군 정부로 활동했던 정의부에

20만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자 했다는 점 등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당시 20만원이 얼마나 큰돈이었는가는 1924년경 창덕궁 대조전 공사 때 쌀 한 가마니가 5원 30전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이제 이 조선 톱에도 녹이 슬었네』, 뿌리깊은 나무, 1981, 33쪽)

그런데 보천교의 자금지원 내용 가운데 받았다고 하는 쪽의 기록이 없다보니 일제 측의 정보자료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보천교는 민족종교였다는 단정을 짓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그 이유는 천자 등극과 관련된 금품사취 문제, 시국대동단을 결성하고 강연을 통해 일선 융화를 주장하면서 동양 삼국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 교육이 필요 없다 하여 후손들의 교육을 가로막은 점 등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시국대동단과 관련해서, 교단 측은 일제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고 항변한다. 학계에서는 이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간교한 술책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 역시 비난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

결국 보천교가 사이비 종교라는 세간의 인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1925년에 결성된 시국대동단의 친일행각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보천교 운동은 1925년 시국대동단 결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1925년 이전을 중심으로 보천교의 민족주의적인 측면을 살펴 본 것이다.

역사학계에서는 통상 항일보다 친일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는 1925년 이전까지는 항일적인 요소가, 1925년 이후에는 항일과 친일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국대동단이 결성된 1925년 이후에도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거나 관련 단체에 암암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국대동단의 결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간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천교가 사이비종교였다는 세간의 속설을 확인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멸책이 되고 말았다.

다음으로 월곡의 천자등극 고발사건을 비롯해서 증산이 남긴 유훈을 통해 천자등극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후손들의 증언을 토대로 월곡이 천자등극을 통해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라는 점과 비결과 예언을 통해서 정읍이 차기 도읍지로 거론될만한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까지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 월곡이 천자등극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고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일보』 등 각종 일간지에 차월곡은 새 왕조가 개창될 것에 대비해 돈을 받았으며 관직을 사고팔았다고 하는 고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차월곡이 재물을 사취한 사이비종교의 교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천교에서는 일제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교금을 분산 관리하고 있었다. 이것은 차월곡이 종교를 빙자해서 사복을 채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이비종교란 종교를 빙자해서 개인의 사복을 채우고 생업을 목적으로 교단을 임의로 만든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둘째, 학계에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상해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과 1918년 제주 법정사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만식의 권총단 사건 등 일련의 과정은 적어도 보천교가 종교를 위장한 독립운동 단체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차월곡의 천자등극을 통한 조선의 독립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진다. 보천교는 유사종교로 분류되어 탄압을 받았으나 직접적인 독립운동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독립운동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설이지만 임시정부 내에서도 보천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 당시 만세시위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박은식의 『한국통사』에는 전국 218개 군 중 211개 군이 참여했으며, 동원된 연인원을 205만 명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임시정부에서는 3·1운동 당시 동원된 연인원과 버금가는 신자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보천교와 연계하고자 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넷째, 보천교는 원년으로 삼고 있는 1909년부터 무진훈사가 있었던 1928년까지 특별한 교리가 없었다. 교단(신파)내에서 이 시기를 '은도시대'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천교는 종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1928년까지 종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처음부터 종교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다. 월곡이 생전에 "보천교는 교가 아니라 도다." 라고 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안후상이 "보천교는 사회운동화 된 종교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필자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다섯째, 월곡이 "내가 세 번 일어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다. 일제 관헌에 잡혀서는 "나는 교중천자일 뿐이지 정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끝까지 부인했고 교주 취임 후에는 '주인장' 이라 불러주기를 원했다고 한다. 여기서 '교중천자' 는 자칭한 것이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인들이 교단 내에서 평소 월곡을 '천자' 라고 불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보천교 도였던 채규일은 월곡을 '폐하' 로 불렀다. 그런데 교인들이 천자가 아닌 선생으

로 숭배코자 하니 월곡이 이를 정중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월곡은 1921년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지냄과 동시에 교주의 자리에 정식으로 취임했다. 즉 이때의 교주란 독립된 국가를 선포한 만큼 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황석산 고천제에서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섯째, 『천지개벽경』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증산은 이미 차월곡의 천자등극을 내다보고 있었으며 실패를 예언하고 있었다.

일곱째, 『정감록』과 각종 비결을 동원하여 정읍이 차기도읍지가 될 만한 곳이라는 암시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덟째, 이영호가 『보천교 연혁사』 속편 발문에 쓴 것처럼 일 관헌에서는 보천교를 '배일단체'로 지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끝으로 민족의 위기에 독립을 표방하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대부분의 신종교가 광복 후 교세가 급격히 침체되었다는 점도 보천교를 민족종교적인 입장에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차월곡은 일제 치하의 암울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동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도 깨닫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천교의 민족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천교는 제한적이나마 종교라는 단체를 표방하면서 은연중 조선의 독립을 염원하고 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강오, 「한국의 신흥종교 자료편」 제1부, 『전북대학교논문집』 제7집, 전북대학교, 1966.

이강오, 「보천교」, 『전북대학교논문집』 제8집, 전북대학교, 1966.

유병덕, 「한국신흥종교의 유사종교규정에 관한 연구」, 『원광대논문집』 제4집, 1969.

노길명, 「증산교의 발생배경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 『증산사상연구』 제2집, 증산사상연구회, 1976.

노길명, 「신흥종교 창시자와 추종자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간의 관계」, 『증산사상 연구』 제3집, 증산사상연구회, 1977.

이태호, 「전봉준과 강증산의 사회사상」, 『공동체문화』 공동체, 1979.

노길명 외, 『한국 신흥종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사회문제연구소, 1979

노길명, 「증산의 민족주체사상」, 『증산사상연구』 제6집, 증산사상연구회, 1980.

정년선, 「한국 신흥종교의 정치사회 사상적 의의」, 고려대학교박사논문, 1982.

이현택, 「증산교」, 『한국종교』 제8집,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1983.

노길명, 「일제하 증산교운동-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서설적 연구」,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출판국, 1984.

노길명, 「일제하의 증산교운동」,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출판국, 1984.

조항래, 「일진회연구」, 중앙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서울, 1984.

한국종교학회, 『한국신흥종교실태조사보고서』, 1985.

홍범초, 「천교 초기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한국종교』 제10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85.

박문석, 「한국근대민중종교가 근대화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정치학과석사학위논문, 1985.

홍범초, 「보천교 초기 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 제10집,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 1985.

유병덕, 「민족적 민중종교의 향방」, 『증산사상연구』 제13집, 증산사상연구회, 1987.

김 탁, 「종교적 예언은 실현될 것인가?」, 『한국정신문화원대학원논문집』 제3집, 1988.

김홍철, 「일제하 증산교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 『증산사상연구』 제14집, 증산사상연구회, 1988.

윤이흠, 「동학운동의 개벽사상 -신념유형과 사회변화의 동인을 중심으로」, 『한국종교연구』 Ⅱ, 집문당, 1988.
김융곤, 「신흥종교 취락에 관한 연구-보천교 발상지 대흥 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9.
김 탁, 「증산교의 신관」, 『한국철학종교사상사』,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1990.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대흥기획, 1992.
배영기, 「강증산의 생명사상(상)」, 『증산사상연구』 제18집, 증산사상연구회, 1992.
이용찬, 「현무경의 符와 후천개벽사상에 대한 연구」, 건국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2.
안후상, 「일제하 보천교운동 -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상)」, 『남민』 제4집, 서해문집, 1992. 안후상, 「보천교 운동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 1992.
임향순, 「보천교와 대흥리」, 『정읍문화』 제2호, 정읍문화원, 1993.
김진수, 「한국민족종교의 후천개벽사상에 관한 비교 연구 -창교주들의 변혁에 대한 대응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서울, 1994.
안후상, 「보천교 본소 건축물 보존운동을 제안하며」, 『정읍신문』 제172호, 1994.
박문기, 『본주』, 정신문화사, 1995.
안후상, 「일제하 보천교 운동」, 『남민』 제5집, 서해문집, 1992, 1995.
안후상, 「일제하 보천교 탄압 사례」, 『일제의 한국민족종교말살책』, 고려한림원, 1997.
안후상, 「일제하 보천교운동 -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하)」, 『남민』 제5집, 서해문집, 1995.
홍성찬,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장정태, 「일제하 신흥종교 연구-강증산의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동국대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7.
안후상, 「제주법정사 무오항일항쟁 연구」, 『일제하 증산종단의 민족운동』, 증산종단연합회, 1997.
양은용, 「일제의 종교정책에서 본 증산교」, 위의 책.
김홍철, 「일제하 증산교단의 수난과 그 대응」, 위의 책.
김홍철 · 유병덕 · 양은용, 『한국신흥종교실태조사보고서』, 원광대종교문제연구소,

1997.
안후상, 「증산 강일순의 생애와 사상」, 『문화저널』 통권106호, 전북문화저널사, 1997.
안후상, 「차경석의 생애와 사상」, 『문화저널』 통권124호, 전북문화저널사, 1998.
안후상, 「보천교와 동학」, 『황토현』 창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8.
안후상,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6, 한국종교사학회, 1998.
안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8.
윤승용, 「신종교와 신종교학」, 『신종교연구』 창간호, 한국신종교학회, 1999.
김재영, 「풍수와 땅이름으로 본 정읍의 종교적 상징성」, 『신종교연구』 제2집, 2000.
안후상, 「차월곡 출생에 관한 소고」, 『신종교연구』 제2집, 한국신종교학회, 2000.
황선명, 「보천교:잃어버린 코뮨:보천교 성립의 역사적 성격」, 『신종교연구』 제2집, 2000.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보천교의 부침과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박종렬, 『차천자의 꿈』, 장문산, 2001.
안후상, 「보천교 십일전과 조계사 대웅전」, 『신종교연구』 제4집, 한국신종교학회, 2001.
안후상, 「불교총본산 조계사 창건고」, 『보조사상』 제15집, 보조사상연구원, 2001.
김재영,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제9집, 한국종교사학회, 2001.
김재영, 「보천교 본소 건축물의 훼철과 이축」, 『신종교연구』 제5집, 2001.
김재영, 「정읍농악과 신종교」, 『한국종교사연구』, 한국종교사학회, 2002.
안후상, 「선도계열의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6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성주현,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2002.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재영, 「입암산과 종교」, 『신종교연구』 제8집, 한국신종교학회, 2003.
김재영, 「보천교의 교육활동」, 『신종교연구』 제15집, 한국신종교학회, 2006.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석사논문, 2006.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 제31집, 전북사학회, 2007.
김재영, 「1920년대 호남지방 형평사의 활동」, 『역사학연구』 29집, 호남사학회, 2007.
김재영, 「동학농민혁명 발생의 종교 · 사상적 배경」, 『신종교연구』 17집, 한국신종교학회, 2008.
김재영, 「형평사와 보천교」, 『신종교연구』 제21집, 한국신종교학회, 2009.
김재영,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정읍시사』, 2009.
김재영, 『보천교와 한국의 신종교』, 신아출판사, 2010.